

해외여행 비용 13년만 최대폭 상승...“여행가기 겁나네”

항공권·숙박비 급등...10월 해외단체여행비 물가 상승률 15.9% 국내단체여행비 물가 3.4%↓ ... ‘숙박 세일 페스타’ 전개 등 영향

지난달 해외 단체여행 비용의 증가 폭이 약 13년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도 물가 상승으로 숙박비가 올랐고 유류할증료 상승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권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여행사들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안전여행인 프리미엄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단체여행비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9%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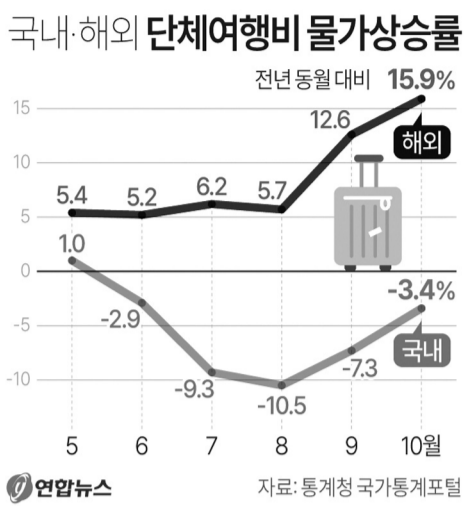
이는 2010년 9월(17.6%)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최고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에는 줄곧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엔데믹(endemic·풍토병화된 감염병)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되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해외단체여행비 물가 상승률은 8월 5.7%에서 9월 12.6%로 상승 폭이 커진 데 이어 지난달에는 15% 선을 넘어선 상태다.

이처럼 해외 단체여행 부담이 커진 것은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권과 숙박비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에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전세버스 기사 등의 인건비와 숙박비, 식사비 등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또 코로나19 이후 항공 노선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어서 해외여행 수요에 비해 항공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와 같은 저가 할인 티켓을 찾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강세로 유류할증료도 올랐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해외 패키지여행의 항공과 숙박 비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정도는 오른 것 같다”며 “이에 맞춰 여행 상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도 “미주와 서유럽 지역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현지에서 전세버스 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비용 자체가 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 상품 구조가 변한 측면도 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비용이 저렴한 대신 쇼핑 장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비용이 좀 더 들어도 소규모로 움직이고 쇼핑 장소를 찾지 않는 ‘노쇼핑’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올해 1~10월 전체 예약 건수 중 프리미엄 상품 비중이 13.24%로 프리미엄

상품 예약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472% 늘었다”고 소개했다.

올해 9월 해외로 나간 관광객 수는 201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25.4% 늘었고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98% 수준까지 회복했다.

지난달 국내단체여행비 물가 상승률은 -3.4%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떨어졌다.

이 수치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국내여행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단체여행비 물가 상승률이 26.0%에 달했다.

또 정부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전국 숙박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숙박 세일 페스타’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은행 신입행원 입교식에서 고병일 은행장과 박만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신입행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2023년 신입행원 입교식

35명중 31명 지역 출신 선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6일 본점에서 고병일 은행장과 박만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행원들의 연수에 앞서 입교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11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인적성, NCS, 일반상식),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한 35명의 신입행원들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연수과정에 들어간다.

신입행원들은 8주간의 연수에서 CS교육을 비롯한 기본 소양교육과 전산실습, 영업점 현장교육 등 직무교육을 통해 은행원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광주은행은 매년 신입행원 채용에 있어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함으로써 지역의 취업난 해소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90% 수준인 전체 35명 중 31명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날 행사에서 신입행원들에게 “지역민과 고객에게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은행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긴 여정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443.96 (-58.41) |
| ↓ 코스닥 | 824.37 (-15.08) |
| ↑ 금리 (국고채 3년) | 3.890 (+0.013) |
| ↑ 환율 (USD) | 1307.90 (+10.60) |

국세청, 중소기업 상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국세청은 7일 중소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59개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영세 중소기업,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등에 첨부된 서식을 채워 신청하면 다음 날까지 적용 가능 항목과 공제 금액, 유의 사항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전망지수 하락에 분양시장 먹구름

전국 3개월 연속 악화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광주와 전남도 전망지수가 추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 지수는 공급이 입장에서 분양을 앞섰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3.4포인트 떨어진 70.4로 집계됐다.

이로써 이 지수는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0.0에서 75.0로 15.0포

인트 떨어졌다. 전남은 81.3에서 57.1로 24.2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대구가 107.4에서 77.3으로 30.1포인트 내리 낙폭이 컸고, 대전(89.5→76.5), 부산(96.3→85.7), 울산(80.0→71.4) 등 충남(56.3→64.3)을 제외한 전국의 지수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방 광역시는 지난달 95.9에서 이달 77.1로 18.8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은 지난달 기준선인 100.0에서 이달 92.5로 내려서며 7.5포인트 추락, 인천(103.6→85.7)과 경기(102.6→97.2)도 기준선 아래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 지수는 10.2포인트 하락한 91.8을 나타냈다.

주산연은 “금리 급상승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수요자들의 아파트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 사업자들의 부담도 확대돼 당분간 분양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청소년금융교육센터 개소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지난 6일 전남본부 1층에 마련된 청소년금융교육센터 전남체험관에서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현 본부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박종탁 농협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전남체험관은 전남지역 은행권 유일의 금융교육센터다. ▲청소년 진로교육이 이뤄지는 '행복채움금융교실' ▲디지털 금융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금융체험관' ▲은행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행직업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정재현 본부장은 “전남 청소년들에게 금융을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올바른 경제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개관했다”며 “다문화가정과 고령층 등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공평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교육과 금융기관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의 기회를 넓혀줄 목적으로 2015년 9월 첫 개소했다. 현재 전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체험관이 운영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